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파룬궁에 관심

[명혜망] 2019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2018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파룬궁 수련생, 기독교도, 불교도 등 신앙인에 대한 박해로 인해 또다시 '특별 관심국'으로 분류됐다.

폼페이오, "미국은 박해자를 주시해 향후 책임을 물을 것"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부가 국제 종교자유 추진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우선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가 말했다. "예전과 같이 보고서는 잔학한 정권과 폭력 극단주의 단체, 그리고 개인이 저지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폭행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종교자유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미국은 주시하고 있고, 당신들은 앞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는 파룬궁 신앙단체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특별



2019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2018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파룬궁 등 신앙단체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특별히 언급했다.

히 언급했다.

폼페이오가 말했다. "중국에서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 기독교도, 티베트 불교도 등 수많은 신앙인에 대해 심각한 박해를 일삼아왔습니다."

"중공은 창립 이후 모든 종교신앙에 대

해 극도의 적대감을 표해왔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만을 신으로 부르며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이런 폭행에 대해 역사가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종교자유보고서>, 파룬궁에 관심

보고서는 중공이 1999년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 정부 추산 7천만 명이 수련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 뉴스는 현재 수천만 명이 비공개로 계속 수련하고 있다고 추산했으며, <프리덤 하우스>는 7백만에서 2천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추산했다.

"파룬궁 뉴스는 당국이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대략 9천명을 납치하거나 괴롭혔다고 밝혔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파룬궁 수련생 4,848명을 납치했고, 추가로 파룬궁 수련생 4,127명에게 소란을 피웠다. 납치된 사람 중 2,414명은 연말까지도 여전히 수감돼 있다."

인터넷 일을 하는 청년, "지금의 중국은 커다란 감옥"

[대륙 투고] 얼굴을 맞대어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중공 사당의 잔인하고 사악한 본질을 갈수록 분명하고 똑똑히 깨닫고 단호하게 그것과 결별하여 자신이 가입한 일체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정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30세 가량의 한 청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한 회사에서 일하며, 인터넷 관련 일을 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말했다. "지금의 중국은 커다란 감옥이고, 국민들이 모두 감옥에 있어요. 민주, 자유, 개인의 사적인 비밀 등 기본 권리가 조금도 없이 백주대낮에 전부 노출돼 있고, 전부 당국자의 통제 속에 있어요."

하나는 휴대폰 실명제인데, 당신이 몸에 휴대폰을 지니기만 하면 당신의 위치를 알고, 어디를 가는지, 어디인지, 어느 구석인지 꿰뚫고 당신이 전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도청해요. 그리고 당신 신분증에 있는 정보와 휴대폰이 서로 통하고 연결돼서 모두 알아요. 휴대폰으로 카드를 긁고 돈을 쓰고

은행에서 얼마를 찾았는지 모두 서로 통하고, 버스에서 휴대폰 카드로 결제했는지, 공유자전거를 뺐는지, 어느 시간, 장소, 위치, 노선, 방위까지 모두 아주 분명하게 기록돼서 국민에게 사생활이 조금도 없으니 너무나 무섭죠.

둘째로 차표를 사는 것도 실명제여서 정류장에 드나들 때는 이른바 삼엄한 지문 확인, 얼굴 인식, 신체 수색, 물품 압수 등이 흔해서 사람들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질식하게 하죠.

셋째로 과급 이상은 반드시 개인상황 명세표를 써서 문서로 비치하게 하면서 각자가 직접 기입해 직장의 간부가 서명을 하게 하는데, 서식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가정의 모든 사람과 직계 가족의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등등 온갖 내용을 지나치게 요구해 원성이 자자하고 원망이 극에 달했어요."

청년이 말했다. "중공은 왜 이렇게 조금의 인성도 없이 국민을 대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정권수립 이후로 무고한 국민 8천만 명을 살해해서 마음이 켄겨 겁을 먹은 데다 인심을 잃었고 민중의 권리 요구를 두려워해요. 그래

서 전 국민을 모두 적으로 여겨 통제를 강화하는데, 이렇게 할수록 국민의 반대를 초래하고, 인심을 잃어서 멸망의 날이 갈수록 가까워져요."

내가 말했다. "아주 옳은 말을 하셨는데,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철저히 꿰뚫어 보셔서 정말 기뻐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소식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하늘의 뜻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구이저우성 핑탕현 장부향에 '장자식'이 있는데, 뒷면에 자연적으로 생긴 '중국공산당 망(亡)'이라는 여섯 글자가 있어요. 중국과학원 과학자, 지질학 전문가 등 과학자들이 모두 가서 조사를 하고는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판정했어요. 이건 바로 하늘의 뜻이죠. 현재 도처에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3퇴해서 평안을 보전하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당, 단, 대에 가입했나요?"

그가 말했다. "저는 공산당을 안 믿기 때문에 입당은 안 하고 공청단, 소선대에만 가입했는데, 그럼 철저하게 취소해야죠."

나는 가명을 지어 그의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도와주었다.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생긴 것을 축하하자 그는 연달아 고맙다고 했다.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악 여전해

[명혜망] 2019년 6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개설된 ‘독립인민법정’은 정식 선고를 통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가 오늘까지 줄곧 계속됐고, 여전히 중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프리 나이스 경이 재판 결과를 공포하며 말했다. “법정 구성원이 모두 확신하건대 의심의 여지없이 양심수의 몸에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공의 범행 시간이 아주 길어 피해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중공이 저지른 모살죄와 집단학살죄 등의 반인류 범죄행위는 확실한 증거로 증명되었다.

영국 왕실 대 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이 재판장을 맡은 ‘독립인민법정’은 2018년 10월 설립됐고, 여러 방면의 증거 수집, 증언 청취와 조사를 거쳐, 런던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나이스 경은 국제형사범죄 영역의 저명인사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형사법정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바 있다.

중공 사악 철저히 폭로

‘독립인민법정’은 판결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세계를 향해 표명했다. “정치, 의료, 문화, 그리고 경제 방면을 막론하고 중공과 접촉하는 모든 조직과 기관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공과 접촉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범죄 정부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정권을 찬탈한 70년 동안 선량함을 박해하고, 육체를 학살하고, 도덕을 타파하고, 자유를 말살하고, 폭력과 동란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중국을 괴멸시켰고, 세계와 전 인류를 심연으로 밀어넣으려 한다.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하늘에 사무치는 중공의 범죄행위는 세계 인민으로 하여금 중공의 극도로 잔인하고 사악한 폭정을 똑똑히 보게 했다.

‘박해자’ 고발로 죄악은 숨을 곳 없어

집주인 둘째 형수의 암이 사라지다

[명혜망] ‘3퇴’하여 행운을 만나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사례는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집주인 둘째 형수의 암이 사라지다

[대륙 투고] 우리 집주인의 둘째 형수는 올해 75세인데, 얼마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암세포가 이미 확산돼 뇌암까지 있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 둘째 형수는 큰 절망에 빠졌다. 둘째 형수에게는 자식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어 남동생(우리 집주인) 집으로 데려와 동생이 돌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기회를 봐서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공산당의 사악함, 텐안먼 분신자살의 허구성과 구이저우 장자석 이야기를 들려주고,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세계 각국에 널리 전해진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항상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게 하고 ‘3퇴’를 시켜주었다.

둘째 형수는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기억한 후 날마다 아주 경건하게 아홉 글자를 외웠고, 날마다 멈추지 않고 외웠다. 보름 후 둘째 형수는

신체가 아주 편안한 것을 느꼈고, 어느 곳도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암세포가 크게 줄어 암이 남아 있었다.

3퇴 후 병어리가 말을 하다

[대륙 투고] 작년 겨울 어느 날, 내가 만난 30여 세의 여자는 병어리였는데, 오른 손은 갈고리였고, 다리를 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귀로 들을 수는 있었다. 나는 문득 자비심이 생겨 그녀에게 말했다. “(파룬궁) 호신부를 하나 드릴 테니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 아홉 글자를 진심으로 외우면 아마 병이 좋아질 거예요. 현재 3억여 명이 퇴당, 퇴단, 퇴대해 평안을 보전했는데, 당신이 댔던 붉은 스카프를 마음속으로 벗어 던지면 생명이 구원을 받고 재난이 왔을 때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그녀는 굳게 믿었고, 왼손으로 한 획씩 자신의 이름을 쓰며 ‘3퇴’에 동의했다. 한 달을 넘긴 어느 날, 길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격동되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제가 나왔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하하하 웃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활짝 웃는 것을 보고 그녀가 복을 받은 것이 기뻐 눈물이 났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2019년 5월 31일, 명혜망이 ‘통고’를 발표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종교 및 신앙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권유린 및 종교박해 가담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여기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관광, 가족 방문, 비즈니스 등)가 포함되며,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들(영주권 소유자 포함)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6월 3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웨이보를 통해 <전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법안>과 관련한 소개문을 발표했다. 이 법률은 인권 박해를 집행한 관원과 줄개가 모두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으며, 제재 방식에는 비자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현재 이미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가 계속되기 어렵고, 중공도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명확한 증거로 확정된 범죄행위에 대해 세인들은 마땅히 모두 일어나 중공의 잔인한 파룬궁 수련생 박해 진상을 폭로하고, 박해에 가담한 사악의 인원을 고발해 세계가 정의로 충만하고 죄악이 도망칠 곳이 없게 하자!

‘텐안먼 분신자살’은 조작극



● 파룬궁 책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둥은 찢쩍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둥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